



봉우 컬럼

무가치한 곳에 투자 말라

교수와 목수의 경우 누가 가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학에서는 교수가 가치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당연히 목수가 가치가 있다. 사막에서는 한 병의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있다. 사람의 가치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또한 사람의 가치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특정 직업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 일을 수행하는 자의 능력이 가치인 셈이다. 그러니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면 시간, 공간을 논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기 분야에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능력의 상하는 있기 때문이다. 땅이나 건물도 그렇다. 건물이 현대식이거나 대로 옆의 땅이라고 투자하면 이미 가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투자의 의미가 없다. 미래를 보고 효율성을 잘 따져 지금은 저평가된 것을 골라 투자해야 한다.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발하여 가치를 끌어올려야 제대로 된 투자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나이 드신 분들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늙었으니까...' 하고 안 씻고, 웃도 안 갈아입어 냄새나면 안 된다. 화장도 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고, 신문도 읽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손들을 지도해야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말로 곁에 다니는 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한다. 아무리 젊은 시절 세상을 호령했어도 늙어 병들면 뒷방신세다. 무가치한 자가 된다. 그러니 누워있지 말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노력하라.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길은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조금은 고되나 잠깐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전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도와 일하는 직원들도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지 않고 그 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을 보고 뛰기를 원한다. 무엇이든 미래의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참 지혜다.

맛없는 스프가 뜨겁기만 하면 누가 먹겠나

폐일언하고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서비스가 좋아봐야 딱 거기까지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는 거다. 신랑감이 흰칠한 외모에 대단한 학력을 자랑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져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인격이 바닥이면 그 결혼은 지옥의 문을 여는 거다. 여자 또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잠언 기자가 두 번씩이나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광야에 움막을 짓고 사는 게 낫다'고 했을까. 미스코리아에 엄친아라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어른들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괜한 말이 아닌 것이다. '살아보니 아니더라'는 산 교훈의 잠언들이다. 서양속담에 '맛없는 스프가 뜨겁기만 하다'는 말도 이에 다름 아니

이 나를 떠날까? 내가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자갈밭이라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목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 받으며 목회자의 따스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리패고 상처를 주니 누가 그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애굽의 2인자라는 엄청난 영광을 갖고 있었지만, 혈기와 분을 참지 못하여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친 인물

사 친구들이 집에 와서 나를 보고는 '네 형, 성질 드럽게 생겼다'고 했었다는 데, 정말 꼬라지 가득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오대양육대주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전 세계의 무리들이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바란다면 온유해야 합니다. 따스할 온(溫), 부드러운 유(柔)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여유를 가진 사람, 그가 옥토입니다. 옥토에는 많은 식물들이 풍성히 자라납니다. 따라서 내가 옥토가 되면 많은 무



감동이 없는 설교는 에너지 낭비요 시간 낭비다

다. 아니 어쩌면 이 속담은 한결을 더 나아가 맛도 없는데다가 뜨겁기까지 하니 설상가상, 최악의 음식을 표현한 셈이다. 음식이나 사람이나 자고로 맛이 좋아야 한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대화를 나눌수록 그 삶의 깊이와 인격에 감화하게 만드는 사람, 인생의 풍미를 느끼게 하는 사람 말이다. 겉은 광이 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밀친이 드러나는 사람은 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목사님은 이를 옥토와 자갈밭의 차이로 설명하셨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주 떨어져 나간다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들

입니다. 그런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모 든 혈기와 분을 빼내더니 온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민수기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그는 엄청난 학식과 로마시민권을 소유한 최상위층의 인물이었지만 기껏 한 다는 일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하더니 온유한 자가 되어 유럽을 복음화 하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며 혈기 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시대 목

리가 따르게 되니 잘 될 수밖에요. 자갈밭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따라서 내 영·혼·육을 잘 가꾸어 옥토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요, 궁극적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박수를 보내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옥토가 되는 길이요,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영원세계에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광주집회

일시: 9월 7(금), 8(토) 저녁 8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문의: 062.262.82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8:27)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르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숨었을 때 까마귀를 들어 먹이셨고, 빌립을 번쩍 들어 올려 옮기신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일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앓은병이를 일으키시며, 소경이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썩이 나게 하시며, 마른 뼈들에 살이 붙어 군사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는 부모가 학교는 보내주지만 공부해서 학점은 내가 해야 하고, 밥은 부모가 해주지만 입에 넣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할 건 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구할 때 얻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공부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6:26)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지만 열심히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게 하시려고 날개를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은 하인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야 일어난 것이고(요2:6~7),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돈 후에 성이 무너졌으며(수6), 죽은 나사로도 돌을 옮겨놓을 때 살리셨으며(요11:39),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후에 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요21:6). 소경 바디매오에게 ‘걸어오라’ 하신 후에 눈을 밝히셨고(막10:46~52), 한나도 통곡의 기도한 후에 남편과 동침할 때 수태되었으며(삼상1),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25).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 하거니와

이 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전쟁에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나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요. 성령을 모셔 들이는 것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문고리도 없고 열쇠구멍도 없기에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노동의 수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잠언 24장의 말씀처럼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하고, 무너진 담을 수축할 때 포도원에 포도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

히 배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쉴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목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단에 선다면 됩니까? 밤새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5~6).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사람이 뿌려야 합니다. 잡초도 사람이 매야 하고, 거름도 사람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태양과 바람을 주셔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저는 30대 기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먹습니다. 배필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배필을 찾아 나서야지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뭐가 됩니까?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인재를 고용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면초가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지시를 받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며 불평불만을 토해냈니

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동풍이 일어 바닷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평처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 꺼진 항구와 같다

교회에 거룩한 백수들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며,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고로 한나나 히스기아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애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운동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내 삶에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에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내 삶에 성장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일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그 분의 역사는 마치 내가 불을 붙일 때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같고, 내가 앞으로 갈 때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씨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막4:31~32).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아드리아 해의 숨겨진 보물

지난 8월 중순에 이탈리아(Italy)와 그리스(Greece)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Adriatic Sea)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회갑을 맞이한 세 명의 친구들이 부부동반으로 일주일간 크루즈 여행을 한 것입니다. 크루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Venice)를 출발하여 몬테네그로(Montenegro)의 코토르(Kotor), 그리스의 코루프(Corfu), 미코노스(Mykonos), 아테네(Athens), 그리고 아르고스톨리(Argostoli)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을 바로 그 곳에서 맞이하였습니다.

베네치아 구 도시 중심에 서있는 산마르코(San Marco) 성당에 특별히 만들어진 성스러운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골고다 언덕에 있던 문자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나무 조각, 십자가에 박히신 못, 예수님의 성의 조각,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성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성체와 십자가에 박히신 모습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잠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Mark)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9세기경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집트(Egypt)로부터 이슬람교도가 싫어하는 돼지고기 속에 유골을 넣고 밀수하여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으로 삼아 산마르코 성당을 건축하여 모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아르고스톨리에 있는 아기오스 안드레아스(Agios Andreas) 수

도원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안드레의 다리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예수님과 사도 두 분의 유물은 최고의 감동과 함께 성스러운 보물로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화합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수평적 화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며,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 삶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살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자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신실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보화로 답하지 않을까요?

이관섭 장로
kslee@krii.re.kr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먼저 하면 아버지가 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시간적, 물질적인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반.

올해 하계산장집회와 수련회 기간 동안 영상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3주라는 시간동안 사업을 뒤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때마침 일이 많이 들어와 더욱 마음에 갈등이 컸습니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진행하는데, 일이 생각대로 잘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고 손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한은택 목사님께서 ‘너에게 복이 오려나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3주간 봉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쏟아졌고, 잠자는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30년 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거짓말을 못하신다.’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제게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제게 흔들어 놓아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 믿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도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의 삶을 살 것이며, 이로 인해 제 삶 속에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은성 성도
es2563@naver.com



:: 진리의 학당 ::

여호와와 사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책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그 이름을 알려주시니(요17:6) 이름은 실재에 대한 표호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하나(딤후6:16) 그 이름을 듣는다. 천사를 통해 현현하신 이름은 여호와이다(출3:15).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는 신적존재로서의 하나님이다. 생육변성과 정복·다스림의 복은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이 필요치 않았다(창1:28).

그러나 사람이 생령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셨으니(창2:3~) 영적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언약을 힘입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도 여호와와 이름이 알려지고 여호와와 사자가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최초로 모세에게 알려주셨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을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출6:2~8).

이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와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으니(출3:2~17)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여호와와 이름을 위탁하시고 그를 ‘여호와와 사자’라 일컫고 여호와와 사자는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라도 그 사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종일뿐 하나님은 아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까지의 노정을 인도했고(삿2:1) 시내산의 계시를 통해 율법(출7:53)과 성막(출25:8~9)을 반포함으로써 광야교회를 이루고(출7:38)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그 중책을 온전히 수행하다가(히1:6) 독생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오시게 되니(마1:21~23) 그의 직무는 종결을 맞게 되었으므로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뿐, 여호와 이름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뵈는 이는 오직 독생 하신 예수뿐이다(요6:46).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보았다 하는 것은 실상은 여호와와 사자를 본 것이니(창22:11,15)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가셨다(창18:1~2).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세 천사 중 하나인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창18:22) 소돔성의 용서를 위해 간구한 바 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났고, 그들 육체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였지만 그들 영혼의 죄는 사함 받지 못하였으니 성막의 예물과 제사는 더 좋은 새 언약의 피로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다(히9:9~15). 예수는 온 세계에 나타나셨고, 전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름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시고 섬기지만(대하6:10) 예수 이름은 우리 심령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14:26).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만이 하늘에 앉으신 심판자요 구세주이시니, 마귀와 죄인에게는 심판자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주이시다. 여호와와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써 그 길을 예비하는 직무를 맡았으므로 여호와와 사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다(요20:28).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표호로 부른 이름이요(호12:5) 종들이 부른 이름이지만 예수 이름은 천하 만민이 부르는 이름이요 자녀들이 부르는 이름이다(롬8:15).

여호와와 모형을 베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멸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를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인내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장치 속에 우리를 보전하신다(요17:11).

박덕규 목사

모태신앙과 성령충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유일한 길을 알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우리 목사님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꿈속에 인 치듯 교훈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으며,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감동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믿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불행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이 누군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옆에서 사랑을 주시고 의지가 되어주는 부모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알고 있다는 단어보다 느낀다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은 그렇게 처음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두 신앙이 깊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태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믿어야한다고 하면 덮어두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덮어두고 믿는 건 그 자체로 축복일 수 있지만 경험보다 강력한 믿음의 초석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신앙과 현실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큰 불안함은 서른 살까지 방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체험은 많이 있었습니만 방언을 하지 못하니 의심이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른한 살 되었을 때 산상집회에서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목사님은 성령세례 시간에 아직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여태 이렇게 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실이 부끄러운 지

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꼭 나가서 성령이 임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시헛말로 등 떠밀려 나갔었습니다. 단 위에 올라간 저는 ‘이제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 위에서는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있었지만 저는 한없이 나약해지지만 했습니다. 실눈을 뜨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했고 ‘이러다가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가라앉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대시니 신기하게 입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과 그 끝의 끝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그날 저는 모태신앙의 테두리를 벗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에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김대화 성도
realdialog@naver.com

못하는 인생 죽은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매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데도 가짜 소망이나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은 곧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우화에는 우매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냉쿨이 있어서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데 우물 밑바닥에는 수많은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밖에는 사나운 맹수가 입을 벌리고 있고, 밑바닥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매달려 있는 냉쿨을 생쥐들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쿨에 달려있는 벌집에서 달콤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고 있다 보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까마득하게 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시종을 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 교단소식 ::



하계산상집회 기간 중 강원도 강릉에 쏠아진 폭우로 강릉교회 뒤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릉교회 김상복 목사는 이번에 큰 태풍이 오고 있는데 서둘러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 지반까지 쓸려나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울교회 최봉식 장로를 비롯한 뜻있는 종들과 장로들이 함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교회에서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갈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가 생각했으나 강릉교회 김상복 목사의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셔서 아름답게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강릉교회 김상복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했는데, 인력으로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천다기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펌프카 한 대와 레미콘 두 대면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상복 목사는 공사비가 없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에 잡는 자가 축복’이라는 믿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에 아산교회에서 펌프카 한 대 값 백만 원과 레미콘 두 대 값(우리특공대) 팔십만

원을 보내 공사를 마쳤습니다.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교회 중 몇 교회에서도 재해현금을 보내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를 지휘하던 최봉식 장로는 두 다리 모두 인공연골수술 후인지라 아픈 다리로 구부려 돌도 잘 굽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공사 마감까지 참여했습니다. 인천의 김형욱 장로, 김충만 장로, 서울의 김성배 장로, 동해교회 김기연 목사의 얼굴은 뜨거운 날씨에 얼굴이 붉게 익었고, 삼척 교회 최요셉 목사는 ‘공사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기도했습니다.

태풍 솔릭이 지난 현재까지 쌓은 축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총회장 이조석 목사의 기도와 교단을 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예수중심교회 박인덕 목사

예수천국, 불신지옥!

회사에 일본인 손님이 왔다. 장시간 차에서 대화를 하던 중 종교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학생 때 여러 사회적 이슈로 종교는 무서운 것이라 여겼다고 한다. 그러다 호주 유학 당시 호주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2년 동안 성경공부를 했단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인즉, 당시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크리스천이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했단다. 그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답에 충격을 받고 그 날부터 종교와 멀어졌다고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에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말을 2년간 성경공부도 했다는 교회에서가 아닌 한국인 친구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것도 놀라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가고, 다른 이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너무하고, 비인간적이고, 심지어는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는 함께 있고, 당신을 싫어하는 자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자 모든 인류의 사후에 적용되는 법을 하나만 드렸지요. 마치 우리도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을 지옥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옛 한국인 친구에 대한 기억도 조금 나아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간절한 영적 이정표이다.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